

주일한국문화원 전통 공연 개최 - 한국의 춤과 울림

조택원 선생 대표작 ‘신로심불로(身老心不老)’, 전라북도 춤 등 선보여

주일한국문화원(원장 박영혜)은 한국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과 가야금병창과 가야금산조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신무용의 개척자 조택원 선생의 대표작인 ‘신로심불로(身老心不老)’를 전라북도 무형유산 전라삼현승무 보유자 문정근이 선보인다. ‘신로심불로(身老心不老)’는 1956년 일본에서 공연 영상이 발견되었으며, 인생무상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또한, 섬세하고 품격 있는 춤사위와 흥과 한이 조화를 이루는 전북 지역의 전통 무용 특징이 잘 드러나는 ‘전라교방검무’, ‘전라여무수건춤’도 선보인다.

이외에도 판소리 ‘춘향가’ 중 이몽룡이 춘향을 향한 그리움으로 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 ‘천자를 읽어도 춘향 생각뿐’ 과,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 하는 마음을 담은 ‘상사천리몽(相思千里夢)’, ‘님 그리는 회포(懷抱)’와 꽃이 피어나는 듯한 생동감과 즐거움을 표현한 ‘꽃타령’ 등 가야금병창 무대도 함께 펼쳐진다.

붙임1 행사 개요 붙임2 행사 포스터 이미지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도교)	홍보담당자	홍보팀장	조은경 (+81-3-3357-5972)
		행사담당자	공연팀장	박지훈 (+81-3-3357-6052)

□ 한국의 춤과 울림

○일시: 2026년 6월 9일(화) 19:00~

○장소: 주일한국문화원 2F 한마당홀 (도쿄도 신주쿠구 요쓰야 4-4-10)

○주최: 주일한국문화원, (주)공연문화예술봄, (주)위즈엘

□ 출연



문정근

전라북도 무형유산 전라삼현승무 보유자
전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장
전주시 문화상
전라북도 지사상



이수현

조선락광대 대표
전라남도 무형유산 우도농악 이수자
전라북도 무형유산 전라삼현승무 이수자



김나연

남원시립무용단 상임단원
전라북도 무형유산 전라삼현승무 이수자
국가무형유산 진주검무 이수자



문지윤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졸업
전라북도 무형유산 전라삼현승무 이수자



김민정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가야금전공 국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동대학원 가야금병창 박사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
 제12회 서울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이은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겸임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본원 강사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제20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대제전 명인부 대상 (국회의장상)

□ 프로그램

1. 가야금병창 ‘민요 연곡’ / 가야금 : 김민정, 이은희, 장고: 이수현

가야금병창 ‘상사천리몽(相思千里夢)’, ‘님 그리는 회포(懷抱)’ ‘꽃타령’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가야금병창은 맑고 고운 목소리와 가야금 연주가 잘 어울린다. 연주할 곡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 하는 마음을 담은 ‘상사천리몽(相思千里夢)’과 ‘님 그리는 회포(懷抱)’와 꽃이 피어나는 듯한 생동감과 즐거움을 표현한 ‘꽃타령’이 연주된다.

2. 민속무용 전라교방검무 / 김나연, 문지윤

전주 지역의 전통 교방무를 바탕으로 한 ‘전라 검무’는 잊혀진 검무의 흐름을 되살린 작품이다. 전주의 민삼현 음악과 ‘국악보’, 그리고 ‘무예도보통지’의 쌍검 동작을 참고하여 재구성했으며, 검의 이치와 수벽치기 원리를 바탕으로 전통의 멋과 기품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3. 창작무용 신로심불로(身老心不老) / 문정근

한 노인이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에 마음의 젊음을 느끼며 인생의 덧없음과 내면의 정서를 춤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신무용의 개척자 조택원 선생의 대표작으로, 1956년 공연 영상이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조흥동이 복원하고 문정근이 전승하며 무대에서 이어지고 있다.

4. 가야금 산조 / 가야금 : 김민정, 장고 : 이수현

"흠어진 가락" 또는 "말 없는 판소리"라고 불리는 산조는 농음과 요성으로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정교하고 아름다운 장단과 선율로 표현하는 민족 기악이다.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장단으로 느리게 시작하여 점점 빨라진다. 가락은 경쾌하며 화려하면서 감칠맛나는 것이 특징이다

5. 민속무용 교방여무수건춤 / 김나연

신광수의 ‘산벽당 12곡’에 묘사된 “한벽당의 검무”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전주 지역 교방의 무용 전통을 되살렸다. 교방가요와 민삼현 음악, 정경태의 ‘국악보’, ‘무예도보통지’의 쌍검 동작을 종합해 구성했으며, 수벽치기 원리를 적용해 검무 본연의 정신과미를 재현하였다.

6. 무가(巫歌) / 문지윤

‘巫’는 신의 뜻을 전하고 인간의 바람을 대신 빌던 무당의 모습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신내림의 몸짓을 춤으로 풀어내었으며, 토속적인 장단과 민요 형식의 창부타령이 어우러져 독특한 흥과 긴장감을 빚어낸다. 장단이 점차 고조되며 춤의 열정이 절정에 이른다.

7. 가야금병창 ‘천자를 읽어도 춘향 생각뿐’ / 이은희

<작곡-홍정현, 작사-이은희>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몽룡이 춘향에게 사랑이 빠져 글자를 읽어도 글자는 읽히지 않고 춘향이란 생각 난다는 내용을 가야금 병창으로 부른다.

8. 우도꽃장구, 이수현류 소고춤 / 장고 : 이수현, 소고 : 김나연, 문지윤

* 우도꽃장구

전남무형유산 ‘우도농악 김동연류 설장구’의 섬세한 춤사위를 바탕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장단의 맛과 발디딤의 멋을 살려 리듬감 있게 재해석하였으며, 정확한 타법과 호흡 속에 발랄하면서도 다채로운 에너지를 담았다. 전통의 멋과 현대적 활력이 조화를 이룬 무대다.

* 이수현류 소고춤

고 황재기 명인의 고깔 소고춤과 우도농악의 개인 놀이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다. 세산조시부터 휘모리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장단 구조 속에서 음양의 조화와 기경결해의 원리를 표현하였다. 농악과 전통춤의 경계를 넘나들며 리듬과 몸짓의 자유로운미를 보여준다.



韓國の舞と響き

6月9日 [火] 19:00 (18:30 開場)

駐日韓国文化院 2F ハンマダンホール

(主催)  駐日韓国文化院
Nippon Cultural Center (株) 公演文化芸術「春」 (株) WIZL (協力)  韓国観光公社
韓国コンベンション振興財団